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 연구 —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

이 강 자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A Study on Recognition and Consumption about Instant Food of Homemakers in Incheon

Kang-Ja Lee

Dept. of Home Management, University of Incheon

ABSTRACT

This study was surveyed concept and consumption for Instant foods by homemakers in Incheon city. The result of study were as follows.

1. In the view of integral numberized high, middle, low, high group reached 19.2%, middle was 50.2% and low showed 30.1%. As higher their ages up, the point was high.
2. Their concept of instant food is close to 'convenience' and 'time saving' but far from 'good for health', 'high nutrition' and 'safe sanitation'.
3.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positive and negative, which proved their concept of Instant foods as 57.5% positively. Negative group which has negative concept for instant food has a good dietary pattern. Positive group which consists of low ages and high income showed positive attitude for instant foods.
4. Consumption of bread, noodles and soybean sources is little bit higher than other items. Consumption by the group which has low ages, highly educated, having small number of children proved high percentage. Also, the group which has good dietary pattern showed low consumption of instant foods comparing to other group.
5. According to the relation between concept and consumption of the instant foods the group that conceives instant foods positive consumes higher than the group which has negative concept.

Key words: Instant food, Homemakers.

I. 서 론

근대의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가정의 식생활 패턴을 많이 변모시켰고, 경제·교육·종교·전통 등은 개인의 식습관 및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¹⁻³⁾ 또한 생활목표 및 가치관도 식품 섭취에 영향을 미친다.⁹⁾ 아울러 식품가공업의 고도성장을 가져와 다양한 종류의 가공식품이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가공업은 1929년 통조림공업에서 시작되어 1930년대에 장유공업, 1950년대에 제분공업, 제당공업이 시작되었으며, 1960년 월남전 파병을 계기로 식품산업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1963년에는 라면이 생산되었다. 1970년대의 경제성장은 식품가공업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1986년에는 대두유, 우유, 유산균 발효유, 소세지, 라면, 수산물 통조림, 간장, 콜라가 급격히 증가되었다.¹¹⁾ 실제적으로 가공식품은 원료를 가공 처리하여 운반과 저장이 간편하고 먹기 쉽고, 영양소의 보강, 조리 시간의 절약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공식품이 가사노동의 간소화와 편리한 점은 있으나 식품첨가물의 사용과 생산, 유통과정상의 안전성의 주의를 필요로 하며, 불균형된 영양소 섭취 등으로 아동의 비만이나 성인병 발생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¹²⁾ 이러한 가공식품 이용에 관한 연구는 가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박¹³⁾은 주부의 가공식품 이용은 주부의 취업 유무가 별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며 김 등¹⁴⁾은 취업주부가 가공식품 소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가정에서 소비된 식품의 종류와 양은 주부의 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가계수입, 가족형태 및 가족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5, 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주부의 특성 및 식습관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소비 정도를 조사하여 각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영양교육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질문지는 조사대상주부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식습관, 가공식품에 대한 주부의 인식, 소비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주부의 특성변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써 연령,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 소득, 자녀수로 구성하였다.

2) 가공식품에 대한 주부의 인식 정도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측정용어 11문항에 대하여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하여 인식의 정도를 구하였다.

3)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

국수류, 라면, 빵류, 소세지, 햄, 어묵, 통조림, 분말소프, 카레, 일품요리종류(1분 짜장, 1분 카레 등),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냉동 식품류, 인스턴트커피 등 12품목에 대해서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 소비 정도를 구하였다.

4) 주부의 식습관

식습관에 관한 13항목에 대해서 Likert형 5점 척도로 구성, 점수를 부여하여 측정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조사 기간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의 국민학교 2개교, 중·고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1994년 6월 1일~6월 8일에 걸쳐 50명의 주부에게 질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는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4년 6월 20일~7월 9일에 걸쳐 총 23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 200부 중 연구 자료로 쓸 수 있는 180부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빈도 분포, 백분율, t-검증 및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40~45세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46세 이상, 40세 미만의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38.9%, 중졸이 37.8%, 대졸 이상이 15.0%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100~150만원 미만이 41.7%, 151~200만원 미만이 23.3%, 200만원 이상이 18.9%이었고, 자녀수를 보면 2명 이하가 46.1%, 3명이 36.1%, 4명 이상이 17.8%의 순이었

다. 주부들의 직업 유무를 살펴보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8.9%,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는 51.1%로 나타났다.

1. 주부의 식습관

1) 식습관의 점수분포

주부의 식습관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13개의 문항으로 식품의 선택 및 조리, 식단체획, 영양정보의 급원과 식생활관리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어 Likert형 5점 척도로 점수화하였다. 65점 만점에 51점 이상을 받은 집단을 상, 41~50점은 중, 40점 이하를 하로 구분하였다. Table 2에 따르면 중집단이 48.3%, 하집단이 28.9%, 상집단이 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주부의 특성에 따른 식습관

주부 특성에 따른 식습관은 Table 3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Group	Number	Percent(%)
Age	below 40's old	48	26.7
	40' ~45's old	82	45.5
	over 46's old	50	27.8
	total	180	100.0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15	8.3
	8 middle school	68	37.8
	high scho	70	38.9
	college	27	15.0
	total	180	100.0
Household income	below 1,000,000(won)	29	16.1
	1,000,000~1,500,000	75	41.7
	1,510,000~2,000,000	42	23.3
	over 2,000,000	34	18.9
	total	180	100.0
Children	below two persons	83	46.1
	three persons	65	36.1
	over four persons	32	17.8
	total	180	100.0
Job of homemaker	have	88	48.9
	none	92	51.1
	total	180	100.0

Table 2. Score of dietary behavior

Group	Number	Percent(%)
Higer(over 51 marks)	41	22.8
Middle(41~50 marks)	87	48.3
Lower(below 40 marks)	52	28.9
Total	180	100.0
Average	44.39	
The standard deviation	6.74	
Range	13~65	

주부의 특성 중 교육수준, 월평균 가계소득, 자녀 수에 따라서는 식습관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주부의 연령에 따른 식습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Scheffe-test 결과 40세 미만 집단이 식습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1)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가공식품에 대해 주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정도를

Likert형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Fig. 1이다.

편리하다에 4.234시간이 절약된다에 4.10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매우 긍정적이었고 건강에 좋다는 1.72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매우 부정적이었다. 또한 영양가가 높다, 위생적이다, 품질이 좋다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지역¹⁸⁾, 대구 지역¹⁴⁾, 한산도 지역¹³⁾의 조사에서도 영양가가 높다, 위생적이다, 품질이 좋다, 건강에 좋다는 낮은 점수를 보여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이었으나, 경기 지역¹⁷⁾은 맛있다가 높은 점수를 얻어 다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전주 지역¹⁶⁾은 조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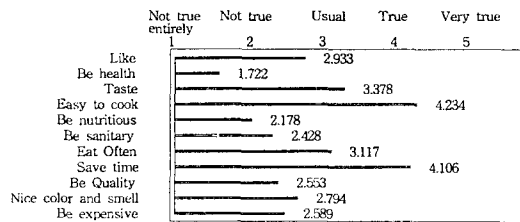


Fig. 1. Image on instant food.

Table 3. Dietary behavior compar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Characteristics	Group	Mean ± S.E	Value	Scheffe-test
Age	below 40's old	41.04	f=9.04***	a
	40'~46's old	45.53	b	
	over 45's old	45.92	b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l	45.14	f=1.03	N.S
	middle school	45.22		
	high school	44.09		
	college	42.67		
Household in come	below 1,000,000(won)	44.68	f=0.71	N.S
	1,000,000~1,500,000	44.65		
	1,510,000~2,000,000	43.32		
	over 2,000,000	44.94		
Children	below two persons	43.59	f=1.08	N.S
	three persons	45.05		
	over four persons	45.19		
Job of homemaker	have	43.40	t=-1.92	N.S
	none	45.35		

*** $P < .001$

a,b : group of same mark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N.S : Not Significant.

간편성과 시간의 절약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본 조사와 비슷하였으나, 영양적인 면, 위생적인 면, 품질면에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낮게 나타나 본 조사와 다른 경향이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긍정 정도를 점수화한 것은 Table 4와 같다. 55점 만점에 32~55점을 긍정적인 집단, 11~31점을 부정적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자의 57.5%가 가공식품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42.5%가 다소 부정적이였다. 이²⁰⁾의 보고에서도 가공식품에 대해 긍정적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식품의 위생과 영양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 가공식품은 독특한 맛의 효과를 위해 첨가되는 재료와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방부제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생활의 합리적인 면에서 손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 준다.

2) 주부특성에 따른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 주부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5과 같다.

Table 4. Image on instant food

Group division	Frequency	Percent(%)
Affirmative(32~55 marks)	103	57.5
Denial(11~31 marks)	76	42.5
Total	179	100.0
Mean±S.D	37.65	
Range	11~55	

본 조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은 주부의 교육수준,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구 지역¹⁴⁾과 같은 경향이였으나 서울 지역¹⁶⁾은 학력이 높을수록 기호인자와 편리성인자가 더 높게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부의 연령별로 보면 40세 미만의 집단과 40~45세 미만 집단, 46세 이상의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서울 지역¹⁷⁾과 유사하였으나 대구 지역¹⁴⁾과 전주 지역¹⁶⁾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집단과 200만원 이상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2명 이하인 집단과 3명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5. Image on instant food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Characteristics	Group	Mean±S.E	Value	Scheffe-test
Age	below 40's old	34.33	f=6.847***	a
	40'~46's old	31.70		b
	over 45's old	30.38		b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30.93	f=1.852	N.S
	middle school	31.02		
	high school	32.83		
	college	33.22		
Household in come	below 1,000,000(won)	29.66	f=3.060*	a
	1,000,000~1,500,000	32.28		ab
	1,510,000~2,000,000	31.83		ab
	over 2,000,000	33.79		b
Children	below two persons	33.30	f=4.152*	a
	three persons	30.83		b
	over four persons	31.19		ab
Job of homemaker	have	32.79	t=1.707	N.S
	none	31.33		

* P<.05, *** P<.001

a,b : group of same mark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N.S : Not Significant.

전체적으로 보면 주부의 연령이 적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많으며,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식습관에 따른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주부의 식습관과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Table 6이다.

주부의 식습관에 따른 가공식품의 인식 정도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구 지역¹⁶⁾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Scheffe-test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상집단, 중집단, 하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식습관이 좋은 집단일수록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정도

1)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정도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는 가공식품 11가지에 대하여 Likert형 5점 척도로 소비 정도를 구하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 정도를 보면 국수류는 가끔 먹는다가 73.9%, 라면은 보통이다가 34.4%, 빵류는 자주 먹는다가 35.6%, 소세지/햄류는 보통이다가 36.7%, 가금 먹는다 27.8%, 어묵은 가끔 먹는다 48.9%, 통조림은 가끔 먹는다가 39.4%, 분말스프나 카레류는 가끔 먹는다가 65.0%, 일품요리(3분 짜장)는 가끔 먹는다가 48.9%, 장류(된장, 고추장, 간장)는 자주 먹는다가 30.6%, 냉동식품류는 가끔 먹는다가 34.4%로서 가장 많았다. 인스턴트 커피는 가끔 먹는다 25.6%, 전혀 먹지 않는다 23.3%, 거의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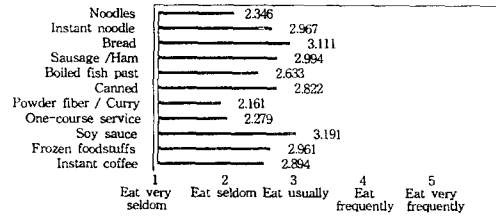


Fig. 2. Average score of consumption degree of instant food.

일 먹는다가 22.8%로서 비슷한 양상이었다. 가공식품의 종류별 소비 정도는 빵류, 장류, 라면류가 다른 품목에 비해 소비가 약간 많았다. 경기 지역¹⁷⁾조사에서도 진간장, 라면, 고추장, 국간장, 토마토케첩의 순으로 이용도가 높아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한산도 지역¹⁸⁾조사에서는 소세지/햄, 라면류, 차류의 순으로 소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냉동식품과 인스턴트 커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 주부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

주부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는 Table 7과 같다. 월평균 가계소득,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에 따라서 가공식품의 소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부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40세 미만 집단과 40~45세 미만, 46세 이상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40세 미만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Image of instant food by dietary behavior of homemaker

Group	Mean ± S.E	F-value	Scheffe-test
Higer (over 51 marks)	28.42	25.249***	a
Middle (41~50 marks)	31.25		b
Lower (below 40 marks)	35.90		c

*** P < .001

a, b, c : Group of same mark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7. Consumption degree of instant food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homemaker

Characteristics	Group	Mean ± S.E	Value	Scheffe-test
Age	below 40's old	33.21	f=10.90***	a
	40' ~ 46's old	29.98		b
	over 45's old	28.31		b
Level of education	elementary school	26.93	f=9.19***	a
	middle school	28.50		a
	high school	32.03		b
	college	32.70		b
Household in come	below 1,000,000(won)	29.66	f=0.043	
	1,000,000 ~ 1,500,000	30.26		
	1,510,000 ~ 2,000,000	30.44		
	over 2,000,000	31.18		
Children	below two persons	32.03	f=6.96**	a
	three persons	28.94		b
	over four persons	29.13		b
Job of homemaker	have	30.40	f=0.05	
	none	30.35		

* P<.01, *** P<.001

a,b : group of same mark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N.S : Not Significant.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지역¹⁷⁾ 조사에서도 같은 경향이였다. 그러나 대구 지역¹⁴⁾, 경기도 지역¹⁷⁾에서는 취업주부가 인스턴트 식품의 소비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고졸, 대졸 이상 집단이 국졸이나 중졸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높았는데 이 결과는 서울 지역¹⁸⁾, 대구 지역^{13, 14)}, 전주 지역¹⁶⁾ 대구 및 도서 지역¹³⁾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녀수에 따른 차이는 자녀수가 2명 이하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의 기호에 보다 치중하여 가공식품의 소비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3) 식습관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

식습관과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Table 8이다.

식습관에 따른 소비 정도는 식습관이 좋은 상집단이 그렇지 않은 중집단이나 하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습관이 좋은 것과 식품의 폭넓은 수용력의 결과라 사료된다.

4) 가공식품의 인식에 따른 소비 정도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과 가공식품의 소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은 Table 9이며, 가공식품에 대해 긍

Table 8. Consumption degree of instant food by dietary behavior

Group	Mean ± S.E	F-value	Scheffe-test
Higer(over 51 marks)	27.88	8.20***	a
Middle(41 ~ 50 marks)	30.21		b
Lower(below 40 marks)	32.62		b

*** P<.001

a, b : Group of same mark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Table 9. Consumption degree of instant food by im-
age of instant food

Group	Mean \pm S.E	T-value
Affirmative (32 ~55 marks)	32.84	-6.91***
Denial (11 ~31 marks)	27.71	

* P < .05, ** P < .01 *** P < .001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서울 지역¹⁶⁾, 대구 지역¹⁵⁾, 전주 지역¹⁶⁾과 같은 경향이었다. 이는 긍정적인 인식이 음식의 수용력과 관계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인천시 주부를 대상으로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과 소비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주부의 식습관의 분포를 보면 중집단이 50.2%, 하집단이 30.1%, 상집단이 19.2%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식습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2)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은 '편리하다', '시간이 절약된다'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영양가가 높다' '위생적이다'의 순이었다. 또 전반적인 인식 정도는 조사 대상자의 57.5%가 가공식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42.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3)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은 식습관이 좋은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의 연령이 적고, 월평균 가계 소득이 많으며,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가공식품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 4) 가공식품의 종류별 소비 정도는 빵류,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라면류가 다른 품목에 비해 소비가 약간 높았으며, 주부의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녀수가 적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식습관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는 식습관이 좋은 상집단이 중집단이나 하집단에 비해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에 따른 가공식품의 소비 정도는 가공식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조사결과에서 가공식품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주부들의 인식에서 가공식품의 품질이 다소 좋아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보존료, 착색료, 팽창제, 표백제, 강화제, 살균제, 유허제, 차향료, 감미료 등)의 안전성이나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위생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소홀히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제조업체도 양심을 가지고 좋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부들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식생활에 좀 더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공식품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과용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 Schaninger C.M. & Allen C.T. : Wife's occupational status as a consumer behavior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981.
2. Reilly M.D. :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food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982.
3. 이희숙, 장유경 :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3), 1985.
4. 김숙희 : 영양실태 조사에 의한 연령과 사회경제적 계층별 영양상태 판정. *식품영양정보 창간호*, 1984.
5. 임국이 : 중도시 주부들의 식품 및 영양에 대한 의식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2(1), 1984.
6. 정혜경, 김숙희 : 한국의 도시 빈곤 지역과 농촌

- 의 영양섭취실태. 한국영양학회지 15(4), 1982.
7. 이일하, 이미애 : 서울시내 여자 중학생들의 성장발육과 영양섭취 실태 및 환경요인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1(1), 1983.
 8. 안숙자 : 서울주부들의 영양교육 현황에 관한 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5(3), 1977.
 9. Yetle, E.A. & Roderuck, C. : Nutrition knowledge and health goals of young spouses. J. Amer. Diet. Assoc., 77, 1980.
 10. 식품과학 20(3). 식품산업발전 심포지엄, 한국식품과학회 1987.
 11. 경제기획원 : 산업생산년보, 1987.
 12. 이유나, 모수미, 유덕인 : 서울시 여의도 아파트 단지내 국민학교 아동의 식생태 조사. 대한보건협회지 69(1), 1993.
 13. 박영숙 : 대구 및 도서지방 주부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4(1), 1994.
 14. 김미향, 한재숙 : 도시 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3), 1988.
 15. 이용학 : 우리나라 취업주부의 소비자 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85.
 16. 정혜민, 백경미 : 주부 소비자의 가공식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논문집 7, 1987.
 17. 안숙자 : 한국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5(1-2), 1989.
 18. 안숙자 : 서울주부의 가공식품에 대한 인식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논문집 5, 1989.
 19. 함인숙 : 주부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가족생활 주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20. 김순옥, 이경옥, 이인선 : 서울 주부의 가공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가정학보, 5, 1983.
 21. 박영선, 박명희, 박영숙 : 울릉도 지역의 식생활 관리 및 영양소 섭취량의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지, 8, 105-116, 1993.
 22. 이윤자 : 식품과학, 19(4), 1986.
 23. 임정빈, 서병숙, 이효지, 장유경 : 라이프 스타일과 식생활양식, 대한가정학회지, 28(3), 1990.
 24. 박영선, 박영숙 : 한산도 지역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소 섭취량의 실태조사, 대구대학교 가정생활연구지, 9, 19-29, 1994.